

원도급자 회생절차 개시돼도 하도대 직접지급 조항은 유효

부산지법 판결

원도급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돼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관한법률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하도급업체 A사가 발주자 B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은 이유로 “A사가 원도급업체로부터 지급받지 못해 B사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도급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금액채권은 하도급자의 원도급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채권과 밀접한 상호 관련성이 있다”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는 원도급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 중 하도급자의 원도급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해 일반 채권자들보다 하도급업체를 우대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따라서 “영세한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도급자가 파산한 경우에 인정되는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제도가 원도급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라 하더라도 배제될 이유는 없다”며 하도급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



놀라운 발견과 위대한 발명

놀이동산

놀이동산은 유럽에서 처음 생겨났다. 19세기 중엽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던 티볼리 유원지에는 타고 노는 놀이동산이 아닌 녹지와 문화 행사가 벌어졌다. 평일 낮에는 소년 고적대가 연주하며 행진하고, 일요일 밤에는 불꽃놀이를 벌여서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그 뒤로 다른 나라에서도 다양한 유원지가 생겨났는데 유적을 축소해 놓은 곳부터 마차로 일주를 할 수 있는 곳

등 독특한 아이디어가 많았다. 얼마 뒤 놀이기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회전목마와 회전관람차가 유행했고 빠른 속도로 달리는 열차 모양의 놀이기구도 생겨났다. 우리나라의 유원지는 놀이기구 중심의 유원지이며 이용하는 사람의 생리적 권태 기점을 감안하여 놀이기구 이용 시간은 대부분 3분 이내로 정해져 있다.

「말랑말랑한 절대상식」 중에서